

연구중심 한전공대 주변에 '고층 아파트 숲' ... 한전도 '당혹'

부지 기증 부영주택,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건설 추진
나주시, 용도변경 절차 착수 ... 전남도 판단 결과에 주목

한전공대 부지를 기증한 부영주택이 인근에 고층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가 토지의 용도를 기존의 녹지에서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최근 착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녹지를 고층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

도 변경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다 세계적인 캠퍼스로 조성될 예정인 한전공대 주변 '고층 아파트 숲'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토지 용도 변경 권한을 가진 전남도 역시 부영주택의 수익만을 감안한 아파트단지 조성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나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한전공대 부지 40만㎡의 부영 CC 잔여부지 35만㎡에 최고 28층 53개동의 아파트 단지(5328세대)를 짓겠다는 부영주택 측의안에 대해 나주시가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에 나섰다.

협의회 심의에서 평가항목을 선정하면 2개 지방일간지 이상 주민열람공고, 관련 실과 협의, 나주시의회 의견 청취,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나주시가 전남도에 토지 용도 변경을 신청하게 된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최종적으로 용도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은숙 나주시 도시과장은 "전남도가 용도 변경을 결정해야 나주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부영주택이 제시한 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주민, 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나주시에서 신청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겠으나 아파트 세대수를 최대한 늘린 현재의 부영주택 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5만㎡에 이르는 부지 내부에 녹지, 도로 등 기반·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빛가람혁신도시 내 바람길, 통풍, 동선, 건축물 높이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훈 전남도 도시계획과장은 "전남도는 용도 변경 여부를 판단하며, 나주시가 건축물 층수와 용적률 등 구체적인 부분은 정한다"며 "녹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 사례가 거의 없어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의 안으로는) 전문가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공대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한전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계 각지의 유명 대학이 대부분 공원이나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고층 아파트 단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부지를 기증받은 입장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다만 연구중심대학 캠퍼스, 산업 클러스터, 연구소 등과 고층 아파트 단지와는 어울린다고 볼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코로나19 확산 '주춤'

산발적 확진 사례는 계속
방역수칙 준수 범시민운동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한풀 꺾인 광주에서 산발적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철저한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0대 여성이 광주 192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지난 14일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약국과 의원을 다니다가 21일 민간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입원 전 검사를 받았다.

광주에서는 20일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가 21일 해외 입국자 3명과 지역감염 1명(배드민턴 동호회 관련) 등 4명, 이날

오후 6시 현재 1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차 유행이 시작된 6월 27일부터 확진자는 159명으로 늘었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은 10개가 넘었던 집단 감염 연결고리를 모두 확인하고 차단함에 따라 한때 하루 22명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수도 소강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다만 최근 송파 60번 확진자 사례처럼 거짓진술 등에 따른 대규모 확진자 발생을 경계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SNS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 밀접 접촉 금지 등 방역 수칙 홍보 범시민 운동을 펼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주말까지 장맛비 ... 50~150mm 예보

오는 25일 오전까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25일까지 광주·전남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24일까지 예상강수량은 50~150mm이

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24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붕괴 등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이홍재의 세상만사 ▶ 2면
- 오락가락 방역기준에 시민 불안 ▶ 6면
- KIA 김규성 '원더 보이'로 돌까 ▶ 18면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2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광주시청 제공>

"광주 초중고 급식 군공항 이전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를"

국회 군공항 이전 정책토론회
국방부, 후보지에서 첫 설명회

담보상태에 빠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관심 뿐 아니라 광주시민의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그동안 군공항 이전 문제를 광주시와 전남도로 미루고 뒷짐을 져왔던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에서 설명회를 열기로 하면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산갑)은 22일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시의 '동년 선물 보따리'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군공항 이전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를 위한 광주만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군공항 이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주시 대중교통 무료, 이전지역 농수산물 광주 지역 초중고 급식으로 우선구매, 이전지역 자녀를 공공기관 채용 우대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군공항 이전지역의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전 지역 농수산물의 광주지역 공공서와 학교 급식 우선구매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주고, 모든 유통을 이전지역에 설립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형일자리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글로벌보터스와 광주시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이전지역 자녀들에게 우대 혜택을 준다던 지역민의 공감을 살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군공항 이전사업으로 지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진표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군공항 이전 사업은 명백한 국가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해당 지자체 간 갈등만 유발되고 있다"며 "수원, 광주, 대구 세 도시의 군공항 이전사업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 박승홍 군공항 이전사업단장은 발제를 통해 "광주와 전남 간 우호적 여건 조성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군 공항 이

전사업 이해 제고를 위한 전남 지자체 등 설명회를 9월께 개최할 계획이다"며 "예비 이전후보지는 특별법상 공영임지·군사 작전 적합지역으로 관계 지자체와 협의 후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국방부가 지난 2016년에 광주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를 마친 상황에서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조속히 선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광주 윤영덕(동남갑), 이병훈(동남을), 송갑석(서구갑), 양항자(서구를), 조오섭(북구갑), 이형석(북구를), 이용빈(광산갑), 민형배(광산을), 권희희(국민의당), 강은미(정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20 전라남도 보물찾기 영상 콘테스트

공모기간
2020. 7. 1. 수 ~ 10.30. 금

응모자격
전국민 누구나

전남을 소재로 촬영·제작한 동영상

공모내용
전남을 소재로 촬영·제작한 동영상

- 공모주제: 전남의 중점 추진 정책(예: 블루이코노미 등), 자연, 문화유산, 인물, 미래 등을 담은 영상물
- 작품형태
 - ① ENG 카메라, 캠코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동영상 제작물
 - ② 애니메이션 기법 등을 활용한 UCC 저작물 등
- ※ 해상도: 1920x1280 이상, 확장자: mp4, wmv, avi, mov
- 작품길이: 1분 30초 ~ 4분

응모방법

- 인터넷방송 전남TV 접속, 참가신청서 작성(개인정보이용동의 필수)
- 영상파일 업로드 (FullHD급 이상으로 제출)

입상작 발표

2020. 12. 2.(수) 예정

- 전남 대표 홈페이지(jeonnam.go.kr), 인터넷방송(jntv.go.kr) 공지

시상내역

총 5편(전라남도지사 상장 및 시상금)

구분	개	대상	우수상	장려상
작품수	5	1	2	2
시상금(편당)	1,100만원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문의

- 전남도청 대변인실 영상홍보팀 : Tel. 061-286-2081
- ※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인터넷방송 홈페이지(jntv.go.kr) 참조